

제2주제

이원간척지를 활용한
엑스포 개최 방안

이 인 배

(충남발전연구원 경제·관광연구부장)

1. 왜 엑스포를 준비해야 하는가?

1. 태안관광의 잠재력을 제고할 이벤트 개최

- 태안군은 서해안고속도로의 개통, “2002안면도국제꽃박람회”의 성공적 개최로 연중 1,500여만 명의 관광객이 방문하는 서해안 최대 관광지로 부상
- 태안해안국립공원 중심의 해안경관과 도서, 역사문화유적, 해수욕장, 사구·갯벌과 같은 생태자원 등 특화된 관광자원이 발달하여 개발의 잠재력이 매우 높음
- 태안군이 보유하고 있는 아름다운 자연자원을 보존하면서 급증하고 있는 관광객을 효과적으로 수용하기 위해서는 태안의 꽃과 바다, 청정한 자연환경, 웰빙에 대한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한 테마형 복합관광지의 조성과 이에 적합한 이벤트가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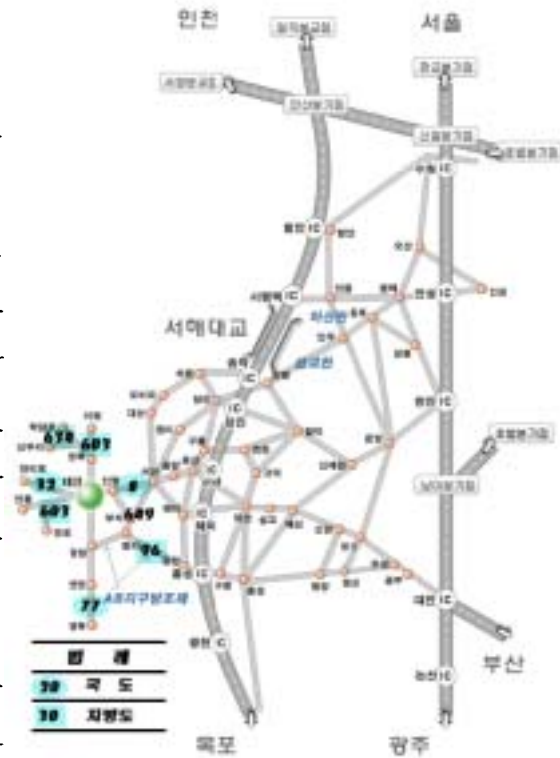
2. 산업과 관광이 있는 지역경제 활성화

- 태안군에 대규모로 방문하는 관광객을 위하여 제공할 수 있는 볼거리, 놀거리, 즐길거리가 있는 대단위 테마형 관광지의 발굴
- 현대적 관광패턴에서 생태체험, 녹색관광 등을 선호하고, 주5일 근무제의 실시에 따른 웰빙 관광수요를 연중 수용할 수 있는 친환경 레저공간의 조성방안을 모색
- 2002안면도국제꽃박람회의 이미지를 지속적으로 유지면서 지역화훼산업을 육성하고, 간척지를 친환경적으로 활용하여 관광과 농업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

II. 태안의 엑스포 개최 환경은 어떠한가

1. 서해안의 양호한 관광입지조건 보유

- 환황해권 관광시장의 급부상과 문화·환경 시대의 전개에 따른 자연환경의 중요성이 크게 부각되고, 서해안 고속도로 개통으로 태안군 지역의 주변환경이 급변하고 있음
- 서해안고속도로 해미·홍성 IC에서 30km권으로 서울 등 수도권이 2시간대 내에 속하며, 서해안지역과 내륙지역의 연계발전을 주도할 당진~대전간 고속도로가 신설되고, 서해안산업관광도로 건설과 연계하여 안면~보령 및 서산 대산~태안 이원간 연육교가 가설되면 광역적 접근체계가 좋아질 전망이다
- 태안군 행정구역은 2개 읍(태안읍, 안면읍), 6개 면(고남면, 남면, 근흥면, 소원면, 원북면, 이원면)으로 구성되어 있고, 행정구역상 179개 행정리와 65개 법정리가 있으며, 792개 반으로 구성
- 2002년 현재 충청남도 인구는 1,919천명/666천세대로 전국인구의 4.0%를 점유하며, 태안군의 인구는 67,947인/23,586세대로 충청남도의 3.5%임
- 지목별 토지이용형태를 충남과 비교하면, 태안군의 전체 토지면적은 충남의 5.8%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중 농업적 토지이용은 35.5%로 충



남의 32.3%보다 높게 이용되고 있지만, 도시적 토지이용의 경우 4.3%로 나타나 충남에 비해서 낮은 토지이용을 나타내고, 태안군의 임야 비중은 48.2%로 충남평균 52.4%보다 약간 낮은 편임

- 도로는 서해안고속도로가 개통됨으로써 수도권을 비롯한 지역외부와 의 간선교통체계는 잘 구축되었으나, 지역내 교통체계는 나갈 때는 들어온 길로 되돌아 나가는 일방향 체제로 연결기능이 미흡
- 태안에는 무역항 1곳(태안항), 국가어항 2곳(안흥항, 모항항), 지방어항 12곳(백사장, 몽대포 등), 어촌정주항 7곳(만대 등)의 어항이 있음
- 2001년 태안군의 15세 이상 인구는 56,879인이며, 이중 고용인구를 기준으로 한 경제활동 가능 인구는 47,445인으로 경제활동 참가율은 81.0%임. 산업별 취업인구의 변화상황을 보면 1, 2차 산업종사자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3차산업의 인구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임
- 태안군은 백화산을 중심으로 북쪽에 산악지대가 많이 형성되어 있으며, 남쪽으로는 저산성 구릉지대로 개발여건이 양호하고, 백화산을 제외하면 표고 100m미만의 완만한 구릉지 및 평탄지로 형성
- 지리적인 여건 및 계절적인 특성으로 다양한 식물군이 형성되어 있으며, 그 중 천연기념물(제138호)로 지정되어 있는 모감주나무 군락지를 비롯한 굴거리나무, 서울제비꽃, 새우난초, 동백나무군락, 사철나무, 줄사철나무, 순기비나무 등은 특이한 지역 자원임.

2. 풍부한 관광자원과 1,500만명 이상 관광객 방문

- 천혜의 자연경관을 자랑하는 태안군의 대표적인 태안8경은 태안군의 전 지역에 고르게 분포하고, 인접한 관광자원의 거점 역할을 담당. 관내 지역 8경으로는 안흥8경, 관송8경, 소원 8경, 수룡8경, 대기8경, 안

면8경, 석우8경이 있어 태안반도의 뛰어난 자연환경과 경관을 자랑하고 있음

- 태안군에는 530.8km에 달하는 리아스식 해안선을 따라 크고 작은 해수욕장들이 다수 분포하여 여름철의 관광수요가 매우 높고, 특히 연간 100만명 이상의 관광객이 집중하는 서해의 대표적인 만리포, 몽산포, 꽃지해수욕장이 입지
- 태안군의 31개 해수욕장은 소원면 8개소, 근흥면 2개소, 남면 4개소, 안면읍 9개소, 고남면 3개소, 원북면 3개소, 이원면 2개소로 소원면과 안면읍에 편중되어 분포
- 태안반도를 중심으로 북쪽의 가로림만, 남쪽의 안면도(安眠島)에 이르는 태안해안국립공원은 육지면적 36.274km², 해상면적 290.30km²임. 태안해안국립공원은 복잡한 리아스식 구조로 해안을 따라 천리포·만리포·연포·몽산포 등 해수욕장이 기암절벽과 어우러져 장관을 이룸
- 태안군의 도서는 119개소로 유인도서와 무인도서 대부분이 천혜의 관광자원이고, 주변지역의 관광자원과 연계되어 입체적인 관광루트를 형성하고 있음
- 주요 관광 섬들은 여객선이나 유람선에 의한 경관 감상과 바다낚시 등으로 유명하고, 주요 항 포구와 연결되어 태안군의 특색음식을 즐길 수 있음
- 태안반도의 낙조는 10월 중순에서 11월 말에 절정을 이루고 관광객들에게 낭만적인 바다의 정취를 제공함. 안면도 승언리 꽃지해변의 낙조는 2개의 바위섬 중앙에 태양이 떨어질 때 할미·할아비 바위의 경관과 붉은 빛이 어우러져 절경을 이룸



- 태안반도는 아름다운 태안해안국립공원과 수려한 자연경관이 비교적 잘 보전되어 있어 해안선은 관광자원과 훌륭한 낚시터를 제공. 청정해역으로 알려진 태안해안은 입질이 좋고, 씨알이 굵어 주말이나 연휴 할 것 없이 평상시에도 낚시꾼들이 찾음
- 태안군의 갯벌은 102.1km²로 경관이 뛰어나고 대부분의 어패류의 산란장이자 해양생태계의 기본을 이루는 곳이어서 천연의 생태학습장을 제공하고, 낙지, 해삼, 골뱅이, 바지락, 맛살, 맛조개, 게조개 등을 직접 잡을 수 있음
- 해안은 전형적인 리아스식 해안으로 아주 원시적인 고기잡이 방법인 독살이 많이 분포해 있는데, 안면도의 밧개, 근흥면의 마도, 소원면의 개목, 원북면의 안피, 이원면의 사목 등은 지금까지 형태가 온전히 보존. 현재는 유일하게 태안군 남면 몽산리 굴혈독살만이 3대째 그 어로법이 이어지고 있음
- 태안군을 대표하는 주요 산악은 백화산, 철마산, 이화산, 도기산, 가재산, 군관산, 건지미산, 후망봉, 묵송산, 봉환산 등이 있음
- 태안군에 안면도 자연휴양림 1개소가 있는데, 안면도 자연휴양림은 국내 유일의 소나무 단순림으로서 수령 100년 내외의 소나무 천연림이 430ha에 집단적으로 울창하게 자라고 있고, 고려 때부터 궁재와 배를 짓는데 주로 사용하였으나 도·남벌이 심해지자 조선 중종 때부터 "황장봉산"으로 봉하여 왕실에서 특별 관리하였음



- 태안군에는 1979년에 비영리재단법인으로 인가를 받은 천리포수목원이 입지하고 있는데, 현재 미국 등 60여 개국으로부터 수집된 식물들은 목련을 비롯하여 약 6,686종에 이릅니다(1999년 4. 18일 기준)
- 꽃지해안공원은 안면도국제꽃박람회 개최장소로서 지역명소뿐만 아니라 대내외적인 관광자원으로 개발되고 있으며, 남면에는 일반인들에게 생태체험을 제공해주는 청산수목원이 있음
- 태안군의 문화재는 국가지정문화재로 보물 1개, 천연기념물 3개, 지방지정문화재로 유형문화재 5개, 기념물 6개, 민속자료 1개, 무형문화재 2개와 문화재자료 4개가 있음
- 태안군은 지역의 전통과 특산물, 관광자원 등과 연계된 다수의 축제와 행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관광상품으로서의 개발을 추진하고, 태안지역은 바다와 농경지를 바탕으로 한 각종 특산물이 사계절 풍성한 고장으로 지역민들은 깨끗하고 싱싱하며 정직한 상품을 공급함.
- 태안의 특색음식으로는 각종 해산물이 계절별, 지역별로 아주 풍부하며, 거의 대부분이 자연산 해물인 생선회, 실치회, 낙지탕, 꽃게, 물오징어 등이며, 특히 가을철에 안면도 백사장항의 자연산 대하와 원북면 이원면의 밀국낙지탕, 신진도의 물오징어는 전국적으로 유명
- 태안군의 국내관광객수는 1996년 7,005천명에서 2001년 11,148천명으로 연평균 9.74%씩 증가하였고, 2002년에는 내국인이 14,645,050명, 외국인이 36,929명이 방문한 것으로 나타남
- 충남대비 구성비는 1996년 17.9%에서 2001년 20.3%로 증가하여 매우 빠르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특히 1999년 이후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서해안고속도로의 개통과 2002안면도 꽃박람회를 계기로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3. 꽃박람회의 성공과 화훼산업의 전략적 육성

- 충남의 화훼 재배농가는 2000년 현재 918호에 달하고 전국화훼재배에서 5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 안면도 태안지역을 중심으로 농가가 밀집하여 주산지를 이루고 있고, 재배면적은 520ha에 달하며 시설면적은 233ha임
- 2000년에 461억원의 화훼류를 생산했는데 절화류가 45.3%를 차지한 209억원, 분화류가 36.5%인 168억원, 관상류가 12.6%인 58억원이 순으로 절화류 생산비중이 높음
- 충남의 품목별 화훼생산량은 1999년에 장미 전국 6위(4.5%), 국화 전국 3위(10.3%), 백합 전국 4위(5.0%) 등으로 나타났고, 2000년의 특화계수에 의한 경쟁력 분석에서 특화계수가 1 이상인 품목은 국화, 카네이션, 백합, 안개꽃 등으로 비교우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충남의 화훼류는 도약단계라고 할 수 있으며, 앞으로 수도권 시장을 적극 공략하고 온난한 해양성 기후를 가진 서해안권을 화훼주산지로 육성하면 화훼산업이 비교우위를 가진 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음
- 태안군에서 화훼를 재배하기 시작한 때는 '79년으로 1농가에서 안개초 및 튜울립을 재배하고, '83년 6농가가 작목반을 구성 본격적인 화훼재배가 시작됨
- 국화를 재배하기 시작한 것은 '85년경으로 처음에는 스텐다드형인 천수, 명문을 재배하다 '80년대 후반에서 '90년대 초에 은설, 동지황 등 현재 주종을 이루고 있는 스프레이 계통이 재배되기 시작하였음
- 태안군 화훼재배 면적이 급속도로 늘어난 계기는 '91년 성장작목단지 조성사업(3개 읍·면 50호, 22,234평, 50억)이 추진이었으며, 화종은 현재 주재배 화종인 장미, 국화, 안개초, 양란, 스타티스, 글라디올러스,

석죽 등이 있음

- '99년 기준 6개 읍면 150ha(시설 90, 노지 60)에 273농가가 화훼를 재배하고 있으며 시설은 유리 2ha, PC 1.1ha를 제외하고는 PE온실(1-2W아취형 연동 40%, 둥근지붕형 연동·단동 60%)임
- 태안군의 화훼산업은 백합, 장미, 난, 국화, 안개꽃 등 다양한 화훼류를 재배하는 농가가 많으며, 재배되는 꽃들 대부분은 일본 등 외국으로 수출되거나 대도시에서 소비
- 태안군의 화훼재배 면적은 237ha이며, 재배농가수는 300호로 충남화훼의 40%에 해당
- 화훼재배여건은 봄과 가을이 긴 서늘한 해양성 기후로 절화류는 물론 구근류의 재배 적지에 속하여 화색이 뚜렷하고 남부지역과 중북부 지역의 중간 지역에 위치하여 출하시기 조절이 용이
- 해외시장 개척을 위해 90년대 초반에 국화를 시작으로 백합, 장미, 양란 수출이 활기를 띠고 있음
- 백합은 14ha, 41호의 농가규모를 가지고 있으며 백합시험장이 관내에 위치하여 농업인과 깊은 연계를 가지고 백합종구 생산단지 조성에 힘을 모으고 있으며, 현재 백만본 수출 목표를 향해 수출백합 연구회를 중심으로 매진하고 있음
- 국화는 64ha, 192호로 화훼 재배 규모가 가장 크며 오랜 재배 역사를 가지고 있고, 현재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수출 시장을 개척, 대국을 중심으로 수출재배를 하고 있으며, 앞으로 스프레이국 재배를 계획하고 있음
- 장미는 23ha, 62호의 농가 규모를 가지고 있으며, 재배품종 개량을 위해 신품종 입식을 추진하고, 재배품질을 높이기 위해 관비재배시설과 인공양액재배 방식을 도입하고 있음

태안군의 재배 화훼품목(2003년)

구 분	품 목
절화류	안개초, 국화, 장미, 고데이지, 스타티스, 백합 등 20여종
구근류	글라디올러스, 튤립, 아이리스, 칸나 등
분화류	동양난, 서양난, 선인장 등
관상수류	향나무, 단풍나무, 사철, 주목, 소나무 등

- 화훼류 유통 출하부분에서 현재는 농가별 분산출하를 하고 있어 제값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으나, 이를 개선하기 위해 화훼종합 물류센터건립을 추진하고 있음

주요 화훼단지 현황(2003년)

지 역	단지명	주 소	주작목	재배면적(ha)	재배농가수(호)
태안읍	장미상옥단지	상옥2리	장미	3	9
	평천화훼마을	평천3리	국화, 안개	15.4	36
남 면	태안원에 영농조합법인	몽산1리	서양란	4.3	5
	남면화훼단지	신장리 몽산리	장미, 국화	19.4	61
원북면	신두화훼단지	신두리	장미, 국화	6	20
소원면	영전화훼단지	영전1리	국화	2.5	7
계	6			50.6	138

자료 : 태안군 내부자료(2003)

- 태안군의 대표적인 화훼단지는 태안읍 2개소, 남면 2개소, 원북면 1개소, 소원면 1개소로 6개소의 화훼단지가 입지. 화훼단지 중에서 남면의 화훼단지가 규모와 재배농가수에서 가장 크고, 인접한 백합시험장과 연계되어 관광자원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주요 화훼단지의 재배면적은 50.6ha, 재배농가수는 138호임
- 2002년 안면도국제꽃박람회의 성공적 개최 후 매년 이루어지는 안면

도 꽃 축제는 많은 볼거리를 제공하고, 관광객을 유치하는 관광자원으로 활용되고 있음

- 장기적으로 충남의 화훼산업이 계획대로 성장할 경우 2010년에 가서는 화훼농가수 1,200농가, 면적 1,240ha, 생산액 850억원에 달하여 전국 3위권의 화훼농업도로 성장할 것으로 계획하고 있음.

충남 화훼산업의 장기전망

연 도	농 가 수 (호)	생산면적 (ha)	생산액(억원)	수출액(천불)	전업농가(호)
1998	799	517.1	353	2,398	90
2002	1,060	690	470	3,190	120
2010	1,200	1,240	850	5,740	220

자료 : 권용대, "충남 화훼산업의 현황과 발전방향", 안면도 국제꽃박람회와 충남 화훼산업 발전 심포지엄, 2002.

4. 국내·외 엑스포는 어떻게 개최되었는가

1) 해외 화훼박람회 사례

(1) 독일 : BUGA99 마그테부르크 정원쇼

- 독일 연방가든쇼는 1926년 에센시의 루르지방의 대정원쇼에서 시작하였고, 1951년부터는 2년마다 정기적으로 독일 전 연방차원에서 지역을 바꾸면서 개최되는 대규모 정원쇼임.
- 장소선정에 있어 더 이상 기 조성되어 있는 공원이나 궁원 등의 우량한 환경만을 고집하지는 않는다는 점임. 오히려 '97년도에 열린 쾰렌

키르헨의 폐광산을 활용한 예라든지, '99년도에 개최된 마그테부르크의 버려진 습지대를 활용한 사례에서 보듯이, 불량한 경관이나 환경 때문에 화훼나 정원에 어울리지 않는 곳을 선정하여 환경을 개선하고, 환경의식을 고취할 수 있는 교육적인 면의 부차적인 기능을 오히려 전면에 부각시키는 경향이 더욱 커지고 있다고 할 수 있음.

- 구동독 마그테부르크에서 개최된 BUGA99는 1999년 4월 23부터 10월 17에 걸쳐 구 동독지역인 작센-안할트주의 주도인 마그테부르크에서 제 25회 연방가든쇼가 개최되었음.
- 꽃박람회가 개최된 마그테부르크 시는 오랜 옛날부터 엘베시로 불렸으며, 1천2백년 전통의 엘베성당과, 전유럽인들의 사랑을 받은 엘베강 비버들의 서식처로써 독일인들에게는 여가활동과 관광의 명소로 각광을 받고 있는 역사적인 관광과 휴양의 도시임. 마그테부르크에서 꽃박람회가 개최되는 곳은 크레카우 습지대로 불리는 중세시대로부터의 유명한 목초지로써 이곳 450ha의 목초지중 황폐해진 93ha의 지역을 꽃박람회장으로 사용하였음.
- 주요한 단위사업들의 내용을 보면, "실내전시관", "천년의 탑 조성", "호수공연장 조성", "쓰레기매립장 되살리기", "토픽가든", "수목원" "자원식물원" 등이 있음.
- Buga99의 정원과 20여개 전시관에는 사랑스런 봄의 꽃들로부터 화려한 여름의 꽃들까지 다양한 꽃들이 전시되었음. 특히, 철쭉과 분재 등 화목류를 소재로 한 작품들과 주택의 발코니와 실내공간을 아늑하고 다양하게 꾸미는 기법을 활용한 작품들이 많이 전시되었음.
- 연방가든쇼는 또한 프로그램의 많은 부분을 어린이들을 위하여 할애하였으며, 특히, 6월 5~6일에 걸쳐 실시된 비버&어린이 축제기간중에는 꽃박람회를 방문한 어린이들을 위한 다양한 관찰과 체험 프로그램이 마련되었고, 어린이들의 교육적인 목적으로 박람회기간중 상설 운영된 체험이벤트인 "녹색의 길" 프로그램에는 3만3천명의 어린이들

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였음.

-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독일의 경우, 꽃박람회는 단순한 꽃전시 행사로 그치지 않고, 행사를 통한 지역발전과 파괴된 생태계의 회복, 시민 휴식공간 제공 등의 사회적 이익과 연계시키는 것이 가장 특징적인 점이라 하겠음.

(2) 중국 : 중국곤명 '99월에박람회

- 곤명꽃박람회는 '99.5.1~10.31(184일) 간에 걸쳐 중국 운남성 금천풍경 명승구 지역의 65만평의 회장 내에서 열렸음. "인간과 자연- 21세기로 들어가며"를 주제로 세계 91개국·단체(65개국, 26개 국제조직)가 참여하여 1000만명이 넘는 관람객을 기록하였음. 행사의 개요는 다음과 같이 요약됨.

- 추진기구: 대회장은 국무원 부총리, 조직위원장은 운남성 부성장이 겸임하였고, 사무처 직원 2,000여명 (그중 화훼전문가 300명 배치)

- 개최기간: 1999. 5. 1 ~ 10. 31

- 사업비 : 1조 7,600억원(대회장 조성: 2,600억원,

간접지원시설: 1조 5천억원)

- 65만 4천평에 이르는 박람회장은 5관 6원 3구로 구성된 박람회장은 곤명시 금천풍경명승구내의 야산을 다듬어 65만 4천평 규모로 조성하였음. 회장배치는 5개의 실내 전시관, 6개의 테마가든, 그리고 3개의 특별 실외전시 구역으로 나누어 준비하였음
- 각종 이벤트로 관람객들이 다양한 볼거리 제공을 위하여 경극 등 중국 고유의 전통 민속극을 소개하고, 중국내 다양한 소수 민족들의 민속공연의 실시와 세계 각지의 참가국들을 대상으로 National Day를

실시하여 전통 예술 등을 공연함

- 6개월간 1000만명의 관람객이 다녀간 곤명박람회를 위해 중국 정부는 15억위안(한화 2,600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였음. 중국은 곤명꽃박람회를 통하여 80년대 개방과 개혁 이후의 이룩한 경제 성장의 성과물을 전세계에 내보이고, 천안문사태 등으로 얼룩진 폐쇄적이고 관료적인 국가 이미지를 화훼로 대표되는 선진문화국의 이미지로 개선하고자 하였음. 아울러 낙후된 내륙오지인 운남성을 개발하고자 하였음.

(3) 필리핀 : 제1회 필리핀국제조원박람회(Florikultura)

- 지난 '98년 1월 11일부터 21일까지 필리핀 팡팡가주의 산페르난도시에서 동남아시아 최초의 제1회 필리핀국제조원박람회가 개최되었음. 이 꽃박람회는 필리핀의 화훼산업 진흥과 지난 '91년 폭발하여 전세계에 기상이변을 일으켰던 피나투보 화산폭발 피해복구사업의 일환으로 개최되었음.
- 꽃박람회는 필리핀 수도인 마닐라로부터 65km 지역에 위치한 팡팡가주의 주도인 산페르난도시의 파스쿠한빌리지에서 개최되었음. 팡팡가주는 마닐라-수빅-클라크로 연결되는 필리핀 경제3각지대가 위치한 필리핀에서 가장 소득수준이 높고 역사 문화적 유산이 풍부한 지역임.
- 이제는 수년간에 걸친 피해복구사업을 통해 주변지역들이 활기를 띠게 되었으며, 특히 피해가 가장 컸던 안할레마을은 피나투보화산관광특수를 통해 필리핀에서 가장 화려한 야경을 가진 마을로 변하고 있음.
- 또한 꽃박람회가 개최된 파스쿠한 마을은 아키노 정권에 의해 연중 계속하여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느낄 수 있도록 건설된 세계에서 3개 밖에 없는 크리스마스마을로 건설되었음. 이곳에서는 크리스마스와 필리핀의 역사적 유산들을 전시하며, 12월 중순경의 랜턴축제는 세계

에서 가장 유명한 크리스마스 랜턴축제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으며, 필리핀 관광청과 각종 면세점, 박물관 및 종합 휴게 레저시설들이 들어서 있어 연중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느끼면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관광 휴양마을이 되었음. 제1회 필리핀국제꽃박람회는 이러한 시설을 더욱 개발하고, 활용가치를 높이기 위한 방편으로 개최되었음.

- 이 행사는 필리핀 꽃꽂이협회·화훼작물협회와 필리핀 관광부·농림부가 공동으로 주최하였고 필리핀 항공 등의 협찬하였으며, 북아메리카와 유럽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30여개 국이 참여하여 전세계적인 꽃의 세계를 통하여 박람회의 주제인 "세계의 정원"을 구현하였음.
- 이제 세계의 정원들은 파스쿠한 마을과 팡팡가주를 대표하는 상징물이 되었음. 또한 출전한 각국들도 자신들의 정원을 세계적으로 3개뿐인 크리스마스마을의 정원으로 영구히 남겨 이곳을 찾는 세계각지의 관광객들에게 자국의 정원양식과 화훼산업을 홍보할 수 있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두고 있음.
- 꽃박람회와 크리스마스마을을 통해 필리핀전체를 생태관광지화 하겠다는 필리핀인들의 의지는 21세기의 경쟁력 있는 산업으로서 전세계적으로 일고 있는 녹색관광(green tourism)시장에서 필리핀의 관광이미지를 높이하고자 하는 필리핀인들의 노력이었다고 볼 수 있음.

(4) 일본 : 오사카국제꽃박람회

- 1990년 4월1일부터 10월31일까지 183일간 일본 오사카시에서 개최된 '90오사카국제꽃박람회는 국제박람회사무국(BIE)에서 공인하고 국제화훼생산자협회(AIPH)가 승인한 아시아 최초의 화훼관련 전문박람회로 개최되었음.
- 오사카시는 지난 세기 일본근대화과정과 전쟁준비과정에서의 중공업의 발달로 일본 최대의 공해물질배출도시로써 "스모크의 도시"라는

불명예를 안게 되었음. 2차대전의 폐해를 딛고 경제부흥을 시작한 1964년도에는 대규모의 오사카시녹화계획을 수립하여 향후 수백년간에 걸쳐 실행하기로 하였음.

- 이러한 도시녹화사업의 일환으로 오사카시는 시건립 100주년이 되는 1990년에 지역 내에서 대규모의 국제원예·화훼박람회를 개최하기로 결정하였음. 오사카시의 계획은 당시 세계최고의 산업강대국으로 발돋움한 일본의 위상을 세계에 알리기 위한 일본정부의 적극적인 지원하에 1985년 엑스포준비위원회를 구성함으로써 5년간에 걸쳐 총 4천 67억엔(도로등 기반사업비 1천8백억엔, 공원정비 및 국내외 참가자 출전 지원비 1천3백억엔, 박람회 운영사업비 890억엔)의 사업비가 투자된 매머드급의 박람회로 추진되었음.
- 꽃과 녹음과 인간생활과의 관계를 연계하여 21세기를 향한 윤택하고 풍요로운 사회를 창조한다는 목적하에 "자연과 인간의 공생"을 주제로 추진된 오사카국제꽃박람회는 오사카 중심부로부터 동쪽으로 약 8 km에 위치한 쓰루미공원 42만평의 부지위에서 개최되었음.
- 꽃박람회가 개최되기 이전의 쓰루미공원지역은 과거에는 황량한 늪과 습지대로써 연근밭으로 사용되는 것이 고작이었으며, 이후 오사카시의 도시성장에 따라 쓰레기 매립장과 지하철공사 토사매립장으로 사용된 후 쓰루미공원으로 바뀌어 호수와 잔디밭승마장과 광장이 있는 그저 넓은공간에 쓰레기가스가 분출되는 특색없는 공원에 불과하였음. 이러한 쓰루미공원이 꽃박람회를 계기로 오사카를 대표하는 녹지공간으로 바뀌었음.
- 183일간의 박람회가 끝난 후 쓰루미공원은 일시 폐쇄되어 꽃박람회기념공원으로의 복원사업이 진행되었음. 실내전시관과 유흥시설들은 철거되었지만, 생명의 탐과 국제정원을 비롯한 주요시설물들은 오사카시에 기증되어 영구히 관리되고 있고, 넓은 잔디밭과 승마장이 복원되었으며, 꽃박람회를 위해 개통된 쓰루미전철과 수천대의 주차능력

을 갖춘 주차장 등은 쓰루미 공원을 오사카 시민들이 편하게 찾아와서 쉴 수 있는 대표적 시민공원으로 탈바꿈시켰음.

- 최근에는 박물관과 수영장을 갖춘 종합리조트 시설이 들어서 종합휴양시설로 거듭나고 있음. 세계의 꽃과 정원을 통한 꽃박람회는 쓰레기매립장으로 각인된 쓰루미지역의 이미지를 오사카시민들과 전세계인들에게서 완전히 바꾸어 놓는데 성공하였음.

2) 국내 엑스포 사례 ; 2005울진세계친환경농업엑스포

(Eco-Agriculture/Organic Food Expo Korea, 2005)

(1) 개최배경 및 의의

- 최근들어 친환경농업이 대두되는 것은 비료와 농약에 의한 증산위주의 관행농법이 최근에 이르러 급격한 산업화·도시화 추세와 더불어 생태계 파괴와 환경오염의 한 원인이 되어 인간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기 때문임.
- 친환경농업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요구로서 자연생태계 보호와 농가소득 증대, WTO/ FTA 등 국제농업여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안전한 농산물 생산을 위한 대안으로 친환경농업이 급부상하고 있음.
- 오염되지 않은 깨끗한 자연조건, 친환경 농업의 고장 울진군은, 『2005울진세계친환경농업엑스포』를 통해 친환경농업의 메카로 거듭나기 위해 지금 그 화려한 비상을 준비하고 있음.
- 친환경농업을 위해서는 농업용수가 항상 2급수 이상 공급될 수 있는 청정지역이어야 하고, 집단화가 용이한 소규모 경작지가 있는 지역이

어야 하며, 같은 구역내 모든 농가가 참여해야만 가능함. 뿐만 아니라 인근에 대기·수질로 인한 환경오염원이 없어야 하고 퇴비를 확보할 수 있는 산림자원이 풍부하여야 한다는 것임.

- 울진군은 친환경농업에도 이상적인 환경여건을 충족하고 있음. 울진군은 2004년 10월말 기준으로 식부면적 5,815ha 중 605ha에 대해 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부터 친환경농산물(유기 79ha, 전환기 7ha, 무농약 482ha, 저농약 37ha) 인증을 받았고, 『2005울진세계친환경농업엑스포』가 개최되는 2005년까지 친환경농업 기반조성 면적을 경지면적의 27%인 1,500ha로, 친환경농산물 인증면적을 경지면적의 12%인 650ha로 확대 추진할 계획으로 전국의 모범적인 친환경농업실천 자치단체로서 발전하고 있음.
- 2005년 7월 22일부터 8월 15일까지 25일간 울진 왕피천 엑스포공원을 무대로 펼쳐질 『2005울진세계친환경농업엑스포』는 해외 20여개 국가가 참가한 가운데 ‘친환경 농업! 인간을 지키는 생명산업’이란 주제아래 농문화 전시 및 공연, 학술대회, 체험, 상품 개발 등 국내·외 특색 있는 친환경·유기농산물의 모든 것을 직접 접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며, 다양한 정보교류를 통해 인류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고 환경생태계를 보전하는 환경친화적인 엑스포를 개최할 것임.

(2) 행사개요

- 주제 : 친환경 농업! 인간을 지키는 생명산업
- 기간 : 2005. 7. 22 ~ 8. 15 (25일간)
- 장소 : 울진 왕피천 엑스포 공원 (206,000 여평)
- 주최 : 경상북도 울진군
- 주관 : (재)2005울진세계친환경농업엑스포조직위원회

- 참가국 : 20여개국(미국, 독일, 덴마크, 호주, 네덜란드, 쿠바, 캐나다, 일본, 중국 등)
- 행사내용 : 6개 분야(농업문화, 전시, 공연, 체험, 학술, 상품개발)
- 후원 : 농림부, 행정자치부, 과학기술부, 문화관광부, 산업자원부, 환경부, 산림청, 농촌진흥청,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상북도, 경상북도시장·군수협의회, 한국관광공사, 농수산물유통공사, 농협중앙회, KOTRA, 포항MBC, 농민신문사, 한국농어민신문사, 농어민방송,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유기농학회, 한국유기농협회, 환경농업연합회, ARNOA, 월간 환경농업

(3) 주요시설 및 공연행사

○ 주요시설

구 분	시 설 내 용
친환경농업관	친환경·유기농 전시, 멀티영상관
비즈니스관	국내기업·전국지자체 홍보관, 세계유가공제품관
판 매 시 설	친환경·유기농마트, 푸드코트
기 타 시 설	전통문화체험장, 향토음식점, 고우이썬터, 왕피천체험장

○ 공연행사

구 분	행 사 내 용
공 식 행 사	개·폐막식, 개막축하공연
주 제 행 사	주공연, 주제영상, 워터스크린상영
상 설 행 사	해외민속공연단 초청공연, 국립단체초청특별공연, 친환경타악퍼포먼스
체 험 행 사	전통문화체험, 민물고기잡기체험, 친환경농산물게임, 기타농경문화체험
특 별 행 사	친환경농업관련 공모작품 전시, 시군의 날 운영, 천연기념물특별전, 친환경 열린콘서트

2005울진세계친환경농업엑스포 조감도



Ⅲ. 이원간척지구 세계화훼엑스포 개최 방안

1. 대상지 여건분석

1) 입지여건

- 태안군의 원북면 이곡·방갈 일원은 과거에는 섬(도서)이었으나 이원간척사업 제방공사에 의한 제방에 연결된 육지의 끝자락에 위치하였고 뒤편에는 태안화력이 위치하고 남쪽으로 이원간척 제방이며 삼면이 청정바다에 접한 곳임
- 간척지의 북측에는 사계절 언제나 출렁이는 청정바다이고 기암괴석의 절경은 서해안 최고의 절경임
- 동쪽으로는 선착장이 대규모로 조성되어 있고, 바로 앞 갯벌은 바지락 채취 및 각종 수산물을 채취할 수 있는 체험어장으로 지정되어 많은 관광객이 찾아오고 있음
- 남쪽으로는 이원지구 간척사업에 의한 제방(길이 4.0km)과 연결되어 있으며, 제방에 2차선 아스콘 포장도로가 개설되어 주변의 체험관광도로로 활용되고 있음

2) 부지현황

- 제방도로는 태안군 북부 해안도로와 연결되는 도로이며 서산시 대산읍 오지리(별말)에서 태안군 이원면 내리(만대)로 연결하여 건설될 조력발전소 건설계획 도로를 거쳐 이원면 이원간척지 제방도로를 경유하여 원북면 방갈리 학암포 해수욕장 경유 신두리 해수욕장 경유 소원면 소근리 해변을 통과하여 소원면 의항리 만리포 해수욕장까지 연

결되는 태안군 북부 해안도로임

- 서쪽으로는 최첨단 설비를 자랑하는 태안화력이 개발대상지로부터 500m 밖에 자리 잡고 있어 관광의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음
- 전체 간척지 매립면적은 1,352ha이고 개발면적은 1,224ha임 이중 매립 면적에는 농지조성 777ha, 담수호 290ha, 회사장 285ha이고, 개발면적에는 내부개답 808ha, 염전개답 117ha, 배후지 299ha임
- 특히, 전체 매립면적 1,352ha 중 69.9ha는 태안군에서 "태안 Green Wellbeing 파크조성"을 계획중에 있음

대상부지 위치도



3) 주변자원

- 주변에 항포구가 산재되어 있어 사계절 수산물이 풍부한 곳이며 유명한 해수욕장과 지역마다 특색 있는 크고 작은 해수욕장이 위치하고 있고, 해안에 독살이 많이 분포하고 있음
- 승용차로 5분 거리 이내에 골프장이 조성 추진되고 있으며, 농사체험, 민물낚시체험, 개벌체험, 수산물채취 체험, 바다갯바위 낚시체험, 염전 체험, 해수욕장 체험 등 다양한 체험을 즐길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있음

2. 태안 세계화훼엑스포 개최 기본전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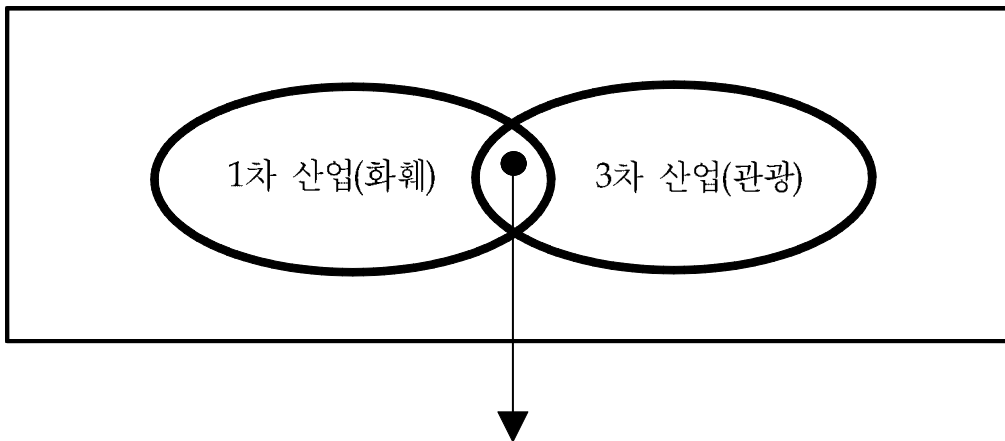
1) 엑스포의 개최목적

- 본 엑스포는 2002안면도국제꽃박람회 이 후 태안군에 대한 범군민들의 공감대 형성과 지역발전의 기폭제이자 자연과 꽃이 아름다운 해안으로 대외에 알리는 마케팅 수단
- ① 태안관광발전을 위한 범 군민적 공감대 형성과 지역 이미지 제공
- ② 화훼와 관광산업의 발전기회 확대 및 제도적 지원기반 마련
- ③ 간척지를 이용한 친환경 산업육성과 토지의 고부가가치로 활용
- ④ 태안군내의 지역적 균형발전과 주변지역 관광자원 활성화 기여
- ⑤ 태안군을 자연과 꽃, 해안이 아름다운 지역으로 장소마케팅

2) 엑스포의 성격

- 엑스포의 성격은 1차 산업과 3차 산업이 조화를 이룬 것으로서 화훼 산업과 관광산업을 연계하여 태안관광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화훼 테마공원 조성 and 대규모 이벤트를 개최

“태안의 1차·3차 산업이 조화를 이룬 엑스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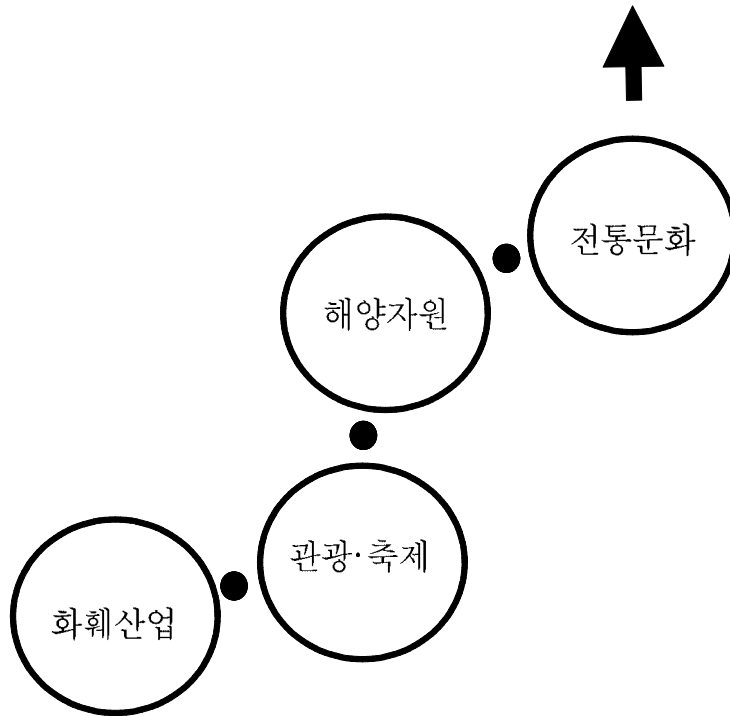
“태안관광을 화훼와 지역문화로 체험하는 종합축제”

- 관광객 : 화훼와 문화관광을 체험하는 테마공간과 이벤트 기회 제공
- 지역주민 : 태안군의 화훼산업과 관광산업육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3) 엑스포의 Theme

- 태안군의 추구하는 해양웰빙도시 건설과 관련하여 웰빙에 맞는 생활이 가능한 화훼와 질 높은 관광휴양공간제공, 해양관광활동과 지역전통문화의 체험을 통한 “웰빙시대 꽃과 바다의 만남”으로 제시

웰빙 세상, 꽃과 바다와의 만남



4) 엑스포 개최시점

○ 개최연도

- 2007년 또는 2010년

* 2006년 금산세계인삼엑스포, 2008년 군문화엑스포, 2009년 백제 문화엑스포 등 개최예정 등을 고려

○ 개최일자 : 타당성 검토 후 대안으로 선정

- 봄(튤립 등 구근류 개화 및 봄철 행락철 시기)
- 여름(장미, 백합 등 개화와 해수욕 시기)
- 가을(국화 등 개화와 가을철 행락철 시기)

- 행사기간 : 25일 ~ 30일

5) 엑스포 명칭

- 1안 : 태안 세계화훼엑스포(Taeon International Flower EXPO)
 - * 태안군 꽃박람회 이미지와 화훼재배 육성과 연계
- 2안 : 태안 국제에코엑스포(Taeon International Eco-EXPO)
 - * 꽃, 사구, 갯벌, 섬, 해양 등의 태안군의 생태자원과 연계
 - * 기존에 태안군에서 제안했던 친환경농업엑스포는 울진에서 2005년에 개최함을 고려하여 제시

6) 엑스포의 수요예측

- 목표관람객 설정
 - 약 550,000명
 - * 현 부지는 태안군이 추진중인 그린웰빙파크 조성단지(약 200,000평)의 실제 이용예상 면적(20%)를 고려한 동시수용규모 고려(22,000명). 특히, 주요 시설지의 만족면적 평균인 6㎡를 본 엑스포장의 동시수용단위로 적용함
- 사례검토
 - 오송국제바이오엑스포의 경우 1일 평균 25,000명 입장(31일간 80만명 입장).

3. 태안 세계화훼엑스포 개최 기본구상안

1) 엑스포 개요

(1) 행사명칭

- 1안 : 태안 세계화훼엑스포(Taeon International Flower EXPO)
- 2안 : 태안 국제에코엑스포(Taeon International Eco-EXPO)

(2) 행사기간 및 일정

- 1안 : 2007년(국내 꽃축제 이벤트로 엑스포의 전단계 준비)
- 2안 : 2010년(국제 엑스포 대규모 이벤트로 개최)

* 행사일정은 이원간척지에 대규모 식재가 가능한 화훼종이 개화하는 시기로 선정

(3) 행사장소

- 충남 태안군 원북면 이곡, 방갈 일원(주행사장 50,000평)

(4) 행사성격

- 화훼산업의 비즈니스와 관광의 이벤트 기능을 포괄하는 종합엑스포

(5) 목표관람객

- 내외국인 550,000명

(6) 주최

- 1안 : 충청남도, 태안군(산업자원부, 문화관광부 참가 제안)

(7) 소요예산

- 221억 내외

* 소요예산은 오송국제바이오엑스포(245억원), 강원국제관광엑스포(486억원), 경주세계문화엑스포(518억원) 등 1인당 평균투자비용 1,004,378원에 일평균입장객을 적용함

(8) 개최목적

- 태안군 이미지 제고와 지역 특화의 화훼 및 관광산업 육성
- 간척지를 활용한 친환경 테마파크의 조성과 태안 북부권 발전 도모
- 태안군 대표 축제 육성과 “꽃과 바다”의 지역마케팅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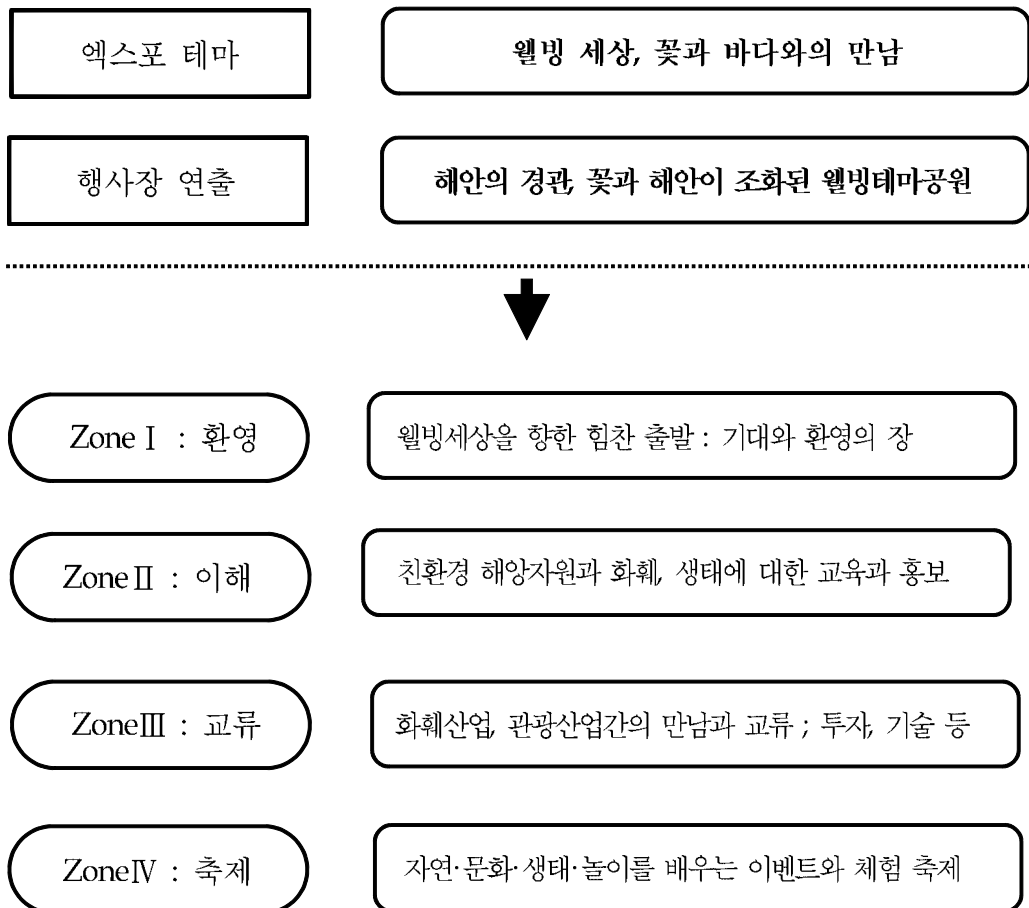
2) 행사장 구성방안

- 행사장 구성 기본방향
 - 행사 후 지속적 활용을 고려한 행사장 조성 : 엑스포 개최 후 친환경

테마공원으로서 관련 행사의 연례개최를 고려하여 조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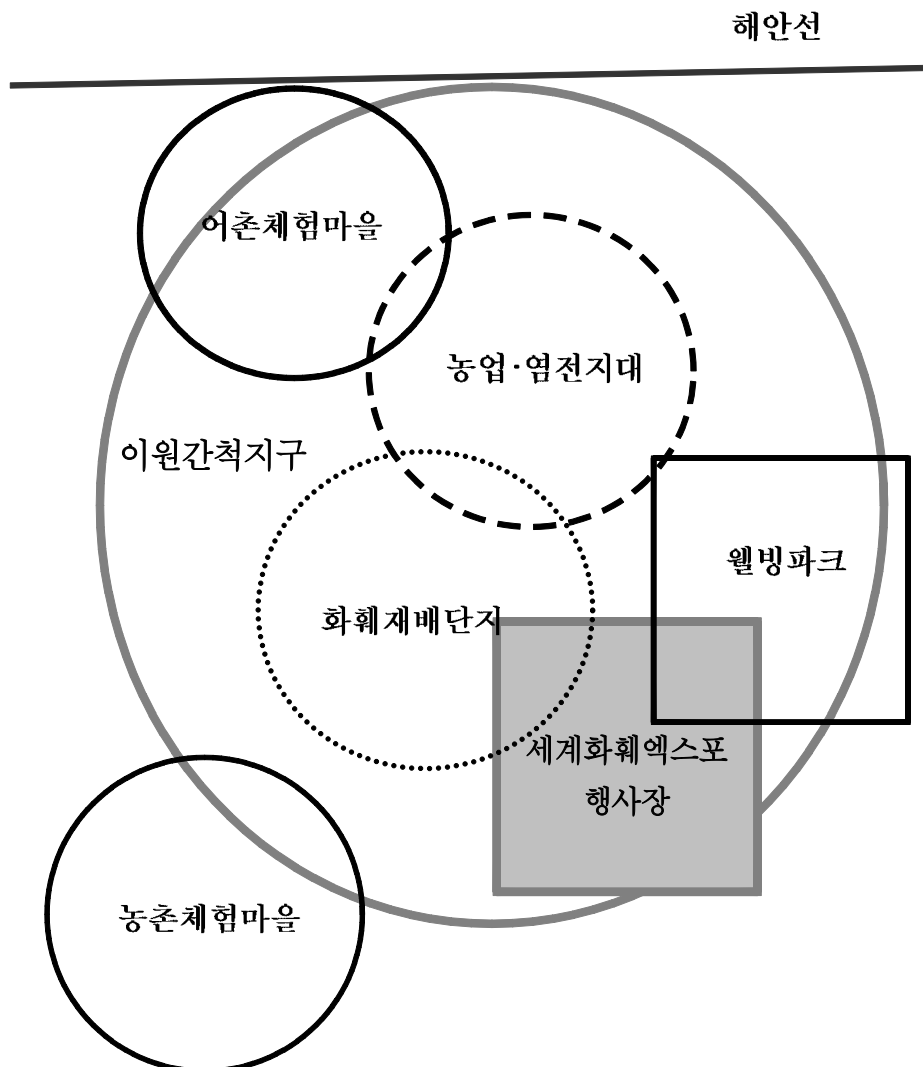
- 화훼와 관광이벤트를 소재로 한 교육과 체험, 재미가 있는 친환경 웰빙테마공원을 조성
- 기능성을 충족시킨 행사장 조성 : 이원간척지 전체 중 주행사공간을 집중시키고, 주변지역은 화훼와 체험공간 조성 및 프로그램으로 운영

○ 행사장 Zoning 구상개념도



3) 행사장 구성방안

- 행사장 구성은 21C 태안 Green Well-being 파크 조성계획과 연계하여 공간구성이 연계되도록 행사장 구성의 방안을 제시
- 행사장 구성 개념도



4) 추진방안

(1) 추진방향

- 우선적으로 이원간척지를 활용한 대규모 이벤트와 테마공원 조성의 방향 설정
- 엑스포를 통한 웰빙파크형 테마공원 조성을 위한 단기 및 장기계획 수립
- 단기적으로는 우선 태안의 대표축제로 태안플라워페스티벌을 지역이벤트로 계획하여 화훼농가 및 단체와 공동으로 개최
- 장기적으로 충청남도과 전국적인 엑스포시기를 고려하여 개최연도를 결정하여 준비단계, 활성화단계, 개최단계로 구분하여 추진
- 지역의 파급효과를 높이기 위해 친환경농업, 화훼, 생태, 태안화력 등 산업개발과 병행하여 추진
- 엑스포행사장은 평상시에는 웰빙테마공원으로 활용하면서 연례적으로 엑스포를 개최하고, 평소에 행사장은 테마파크로 이용하여 관광객 유치

(2) 단계별 추진내용

- 장기적인 차원에서 단기계획, 중기계획, 장기계획으로 단계별로 추진

○ 사업추진일정

단기계획	2005년 ~ 2006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계화훼박람회를 위한 타당성 검토 및 기본계획 수립 (웰빙파크 조성계획도 병행하여 수립) • 세계화훼박람회의 구체적인 계획 및 목표수립 • 운영인력 육성과 화훼엑스포 개최에 대한 인식전환과 홍보의 실시 • 신규시설의 건설과 엑스포장 보완 및 마케팅 계획 수립
↓		
중기계획	2007년 ~ 2008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차단계로 2007년 태안플라워페스티벌 개최 • 세계화훼박람회 실효성을 위한 준비점검과 행사장과 프로그램 보완 정비 • 엑스포 개최에 대한 온라인·오프라인 홍보를 통해 관람객들 관심제고 • 행사장 준비 및 국내외 참여기관과 단체 섭외 완료
↓		
장기계획	2009년 ~ 2015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계화훼박람회 개최 및 평가 실시와 개선·보완 • 엑스포를 통한 지역발전 비전과 목표달성에 대한 정기적인 의식교육 • 엑스포장을 지속활용한 웰빙테마파크의 조성 추진 • 실질적인 도농교류의 활성화와 지역산업발전을 도모하면서 새로운 사업영역 확대

IV. 결론 및 정책제언

1. 결론

- 태안군은 주5일 근무제와 웰빙시대가 추구하는 풍부한 환경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특히 청정한 해안 경관, 지역 특화의 화훼산업, 다양한 관광자원 등의 자원을 보유
- 입지적으로도 수도권에서 접근성이 양호하며, 서해안고속도로 개통으로 관광객이 급증하여 연간 1,500만명 이상의 관광객이 방문을 하므로 이들을 위한 체류공간과 관광활동, 이벤트의 제공이 요구됨
- 특히, 기존 2002안면도국제꽃박람회의 성공적 개최로 형성된 태안군의 이미지를 지속적으로 살리고, 지역의 대표축제로서 육성하기 위하여 화훼엑스포를 개최 필요
- 엑스포 행사장은 기존의 간척지를 이용하여 토지를 고부가가치로 활용하고, 태안화력, 간척지, 화훼, 테마관광지로 연계되는 친환경 웰빙 테마공원으로 조성하여 테마관광지로 활성화
- 태안군의 남쪽에 집중된 관광자원 개발을 북쪽으로 분산하여 태안지역의 균형발전 추구하고 태안화력을 연계하는 친환경 테마공원을 조성하여 지역발전의 활력소 제공
- 이상의 태안군 환경여건을 고려할 때 태안군의 엑스포개최를 통한 웰빙테마공원의 조성은 태안관광의 장기적인 발전과 지역경제발전에 파급효과가 매우 클 것으로 사료됨.

2. 정책제언

- 전국과 충남에는 각 연도마다 다양한 주제의 엑스포와 박람회 등 메가이벤트가 계획되어 추진 중에 있으며, 이들의 파급효과에서도 긍정적인 효과도 있는 반면 부정적인 효과도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 특히,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거나 테마의 연계성이 미약하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미흡한 행사는 이를 취소하거나 행사를 축소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현실을 감안하여 행사를 검토해야함
- 따라서 태안군이 이원간척지구를 활용하여 엑스포를 개최하고, 이를 웰빙테마공원으로 조성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을 중요한 포인트로 고려해야함
 - 엑스포 개최를 위한 태안군의 의지와 지역주민과 단체간의 공감대 형성이 어느 정도 단단히 결집되어 있는가
 - 충청남도과 태안군의 대내외적 여건을 볼 때 과연 엑스포를 개최할 수 있는 여력과 2010년 이내에 시기적으로 가능 하겠는가
 - 엑스포 개최와 이를 연계한 웰빙테마공원 조성의 타당성은 있는가. 특히, 재무적 타당성과 지역경제의 파급효과는 얼마나 있는가
 - 엑스포 개최와 웰빙테마공원 조성을 위한 간척지 활용에 법과 제도적 규제의 한계는 어느 정도 인가
 - 꽃을 테마로 대규모 화훼단지를 조성할 경우 간척지의 염분으로 인한 꽃의 생육 장애를 극복하고 상업적으로 수익을 가져올 수 있는가
- 이상의 주요 사항을 검토한 후 엑스포 개최와 웰빙테마공원으로 조성을 장기적인 차원에서 단계별로 로드맵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참고문헌>

충청남도(2004), 『군문화엑스포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

충청남도(2003), 『벤처농업박람회 개최 기본계획 연구』 .

충청남도(2003), 『충남통계연보』 .

태안군(2003), 『태안통계연보』 .

태안군(2004), 『21C 태안 Green 웰빙파크조성 계획 내부자료』 .

태안군(2003), 『태안군 관광개발 기본계획』 .

<http://www.2005ofex.org>.